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리라” 재판 없이 20년 넘게 수감된 에리트레아 교회 지도자들 석방 촉구 캠페인



에리트레아 정부에 의해 재판 없이 20년 넘게 수감된 7명의 기독교 지도자들을 위한 전 세계적인 석방 촉구 캠페인이 시작됐다. ‘정의를 위한 목소리’(Voices for Justice) 캠페인은 유엔이 지정한 ‘종교 또는 신념에 기반한 폭력 희생자 기념 국제의 날’인 8월 22일을 맞아 진행된다.

미국 워싱턴 D.C.와 영국 런던, 스위스 제네바에서는 평화 시위가, 스리랑카, 브라질에서는 온라인 기도회가 열린다. 핀란드, 나이지리아, 폴란드 등 15개국 이상은 다양한 연대 활동을 벌일 예정이다.

수감된 지도자들은 게브레메딘 게브레조르기스 목사, 푸추움 게브레네구스 박사, 테클레아브 멩기스테아브 목사, 하일 나이즈게, 키플루 게브레메스켈, 메론 게브레셀라시에, 키다네 웰도우 등이다. 이들은 현재 아스마라에 위치한 악명 높은 웅겔 메르메라(Wengel Mermera) 형사 조사 센터에 모두 기소, 재판, 변호사 접견 없이 수감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 중 3명은 메드하네 알렘 교회에 소속된 정교회 사제로 2004년 이후부터 수감 중이다. 게브레네구스 박사의 아내와 아버지는 그가 수감된 후 몇 년 만에 세상을 떠났다. 게브레조르기스 목사의 아내는 2022년 6월 암으로 사망했으며, 남편과 사이에 세 자녀를 남겼다.

존경받는 의사였던 멩기스테브 목사는 체포 당시 아스마라 세인트 메리 정신병원 의사였다. 그의 아내와 두 딸은 이후 안전을 위해 국외로 도피한 상태다. 이들은 모두 2003년부터 구금돼 있으며, 가족과의 연락은 물론 법적 절차도 없이 장기간 수감 중이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이들의 수감 환경을 “극도로 열악하고 비인도적”이라고 평가했다. 이번 캠페인에는 21일버포스, 국제기독교자유, 내 백성을 자유케 하라, 세계기독교연대, 주빌리캠페인, 처치인체인, 국제오픈도어 등의 인권단체들이 참여했다.

미국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의 2025년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에리트레아의 약 630만 명 인구 중 약 51%가 수니파 무슬림이며, 41%는 에리트레아 정교회 신자, 5%는 로마 가톨릭 신자다. 개신교 신자 및 무종교 기독교인, 무신론자 및 무신앙인, 토착 전통 종교 신자, 시아파 무슬림, 바하이교도는 인구의 5% 미만을 차지하고 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악한 자를 그가 악하다고 탈취하지 말며 곤고한 자를 성문에서 압제하지 말라 대저 여호와께서 신원하여 주시고 또 그를 노략하는 자의 생명을 빼앗으시리라(잠언 22:22-23)

하나님, 사랑하는 가족 한번 만나지 못한 채, 마치 잊힌 사람처럼 20년 넘게 극한의 감옥 속에서 지내는 교회 지도자들의 석방을 위해 세계적인 캠페인으로 연합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캠페인과 기도회를 통해 교회를 박해하고 그들의 생명을 노략하듯 빼앗는 에리트레아 정부의 압제가 끊어지고 사탄의 악한 계략이 무너지게 하옵소서. 단지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로 묶임 당한 모든 자들과 가족들의 안전을 주께 의탁드립니다. 이들의 고통에 신원하여 주사 자유를 얻게 하시며, 하나님의 의를 구하고 찾는 자에게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는 깊은 사쁨으로 인도하소서.

▲ 유엔, 가자지구 첫 ‘기근’ 선포 예정…50만 명 굶주림 직면

유엔이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 식량 위기 최고 단계인 ‘기근’(Famine)을 공식 선포할 예정이라고 연합뉴스가 22일 텔레그래프를 인용해 보도했다. 유엔 기구와 비정부기구(NGO)들이 참여하는 통합식량안보단계(IPC)는 22일 오전, 약 50만 명이 거주하는 가자시티 등 북부 지역을 대상으로 기근을 선포할 계획이다. 통합식량안보단계는 식량 상황을 5단계(정상-경고-위기-비상-기근)로 구분하는 국제 공인 시스템으로, 기근은 가장 심각한 단계다. 통합식량안보단계는 “22개월간 이어진 분쟁으로 가자지구 내 50만 명 이상이 굶주림과 죽음의 위협에 놓였다”고 밝혔다. 현재 추세가 지속되면 기근은 9월 말까지 중부 데이르 알 발라흐, 남부 칸유니스 지역으로 확산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자 보건부에 따르면 2023년 10월 전쟁 발발 이후 지금까지 271명이 기아로 숨졌으며, 이 중 112명이 어린이다. 특히 절반 이상의 사망자가 최근 3주 동안 발생해 위기의 심각성을 보여 주고 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낮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예레미야 33:6)

하나님, 분쟁과 하마스의 탈취로 인해 가자지구의 식량 위기 상태가 최고 단계로 올라 날로 악화해 가는 처참한 상황을 돌봐주소서. 주여, 구하오니 이 성읍을 치료하시고 고쳐 낮게 하시고 필요한 자들에게 양식이 온전히 공급될 수 있도록 인도하소서. 탐심과 권력에 사로잡힌 악한 세력을 꾸짖어 잠잠케 하시고 십자가 복음으로 이 땅 영혼들에게 평안과 진실의 풍성함을 나타내 보이사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을 선물로 주옵소서. 지금도 목마른 영혼을 찾으시는 하나님이 가자지구에 선한 손길로 함께하여 주셔서 주를 찾는 자들에게 구원의 기쁨을 얻게 하실 주님을 신뢰합니다.

▲ 전 세계에서 ‘AI 정신병’ 속출…AI 챗봇 대화로 현실 감각 상실

AI 챗봇 또는 AI 컴패니언(동반자)과의 대화로 현실감각을 잃는 ‘AI 정신병’이 전 세계에 속출하고 있다고 27일 뉴스1이 보도했다. 27일 킹스칼리지 런던 이 참여한 연구팀이 발표한 논문(사전출간본)에 따르면, AI 챗봇이 “나는 신에게 선택받았다”, “나는 세상을 바꿀 천재다” 등 이용자의 의견·주장을 증폭시켜 망상적 발언을 확증해준다고 설명했다. 한 남성은 챗봇이 “진심으로 네가 믿으면 날 수 있다”고 답변하자 극단적 행동을 시도했다. 한 여성은 챗봇과 대화하며 ‘수호신이 내려왔다’고 믿어 가정이 파탄 났다. 캐나다의 한 남성은 3주간 300시간 넘게 챗GPT와 대화하며 ‘세상을 바꿀 수학 이론’을 발견했다고 믿게 됐고, 이를 주변에 알리다 망상이라는 걸 깨닫게 됐다. 특히 미국에선 14세와 16세 소년이 AI 챗봇과 대화하다 지난해 2월, 올해 4월 각각 자살했고 현재 법적 다툼이 진행 중이다. 킹스칼리지 런던의 모리스 해밀턴 박사는 “AI 챗봇 대부분은 이용자의 믿음을 그대로 반영하거나 더 확대하는 아침 방식으로 반응한다”고 지적했다. 슌레이먼 MS AI CEO는 “AI 챗봇의 의인화는 현실과 사람의 단절과 사회적 유대, 도덕적 우선순위를 왜곡할 위험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요한복음 8:31-32)

하나님, 주께서 창조하신 원형을 잃어버리고 자기를 사랑하고 거짓과 미혹이 난무하는 시대속에서 혼돈하며 방황하는 영혼들을 불쌍히 여겨주소시오. 인공지능을 개발하고 의지하다가 도리어 어리석고 미련함 가운데 행하여 정신병으로 혼미케 하는 배후 사탄의 모든 간계를 파하여 주옵소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진리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자유케 하며,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참된 지혜를 얻을 수 있음을 알게 하소서. 허망하고 공허한 세상 지혜를 버리고 살아계신 주님 안에 거하고, 주의 말씀을 따르는 백성들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케냐 경찰, 아이티에서 기도 모임 개최...“우리가 본 것은 하나님의 손길뿐”



아이티 파견 임무를 수행 중인 케냐 경찰 특수부대가 수도 포르토프랭스 기지 캠프에서 정기적인 기도와 교제 모임을 이어가고 있다. CNN 아프리카 특파원 래리 마도오가 소셜미디어에 공유한 영상에는 약 60명의 기독교 신앙을 가진 경찰관들이 함께 예배하는 모습이 담겼다.

한 경찰관의 인도로 진행된 모임에서 이들은 임무 수행의 성공과 보호를 하나님께 의탁하며 믿음을 고백했다. 그는 동료들에게 “이번 임무에서 우리는 하나님만을 100% 신뢰한다.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주님을 의지한다”고 전했다.

케냐 경찰은 아이티 정부가 수도를 장악한 무장 갱단들을 제압하고 치안을 회복하도록 돕기 위해 파견되었다. 최근 갱단이 점령했던 아이티 국제공항은 정부가 되찾았지만, 여전히 포르토프랭스의 약 85%가 여러 갱단의 수중에 있다. 지난 7월 중순까지 600명의 케냐 경찰이 도착했으며, 연말까지 12개국에서 2,000명의 추가 인력이 합류할 예정이다.

말씀을 맡은 경찰관은 “우리가 아이티에 온 이후 본 것은 하나님의 손길뿐이었다. 우리에게 대해 여러 말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셨다”며 동료들이 바쁜 상황 속에서도 기도와 교제를 이어가고 있음을 격려했다. 그는 사도행전 2장 42절을 인용하며 “사도들의 가르침과 교제,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쉬지 않았다. 우리도 이 임무 속에서 말씀과 함께 나아간다”고 전했다.

또한 이들은 아이티 과도정부의 가리 코닐레 임시 총리와 과도위원회, 내각을 위해서도 기도했다. 코닐레 총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아이티에 대한 국제사회의 피로감을 이해한다”면서도 “긴급한 지원이 절실하지만 희망이 생기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케냐는 미국이 지원하는 이번 다국적 치안 회복 임무에 약 1,000명의 경찰을 투입하고 있으며, 여기에 영적 개입도 포함시켰다. 이는 케냐 윌리엄 루토 대통령의 부인 레이첼 루토 여사의 주도로 추진된 것으로, 그녀는 지난 6월 케냐 미국 아이티의 복음주의 목회자들과 만나 “기도 없이 경찰을 아이티로 보낼 수 없다”며 기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루토 여사는 “우리가 힘을 모아 아이티를 위한 기도 전략을 세우고 있다. 하나님께서 아이티를 변화시키실 수 있음을 믿으며, 여러분도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란다”고 전했다(출처: 미국 크리스천데일리, 기도24·365본부 종합).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모든 육체가 주께 나아오리이다, 주는 주의 힘으로 산을 세우시며 권능으로 띠를 띠시며 바다의 설렘과 물결의 흔들림과 만민의 소요까지 진정하시나이다 (시편 65:2,6-7)

하나님, 폭력과 무질서로 황폐해져 소망을 잃어버린 아이티를 위해 파견된 케냐 경찰들이 함께 주의 힘을 의지하는 예배와 기도 모임으로 나아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전히 무법천지와 같은 아이티에 믿음으로 쌓아 올린 기도의 성벽을 통해 산을 세우시며 바다의 흔들림을 그치게 하시는 주의 권능이 나타나 이 민족들의 소요가 진정되게 하옵소서. 케냐와 미국, 아이티의 교회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 어둠의 견고한 진이 무너지고 모든 육체가 주께 나오는 하나님의 크신 역사를 보게 해 주소서.

▲ 보츠와나 ‘공중보건 비상사태’ 선포…각급 병원, 의료품 품귀

남부 아프리카의 보츠와나가 의료품 품귀 현상으로 25일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했다고 연합뉴스가 현지 매체 음메기 등을 인용해 보도했다. 두마 보코 보츠와나 대통령은 이날 TV연설에서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국가 의료 공급망이 무너져 각급 병원이 의료품과 기타 필수 물자 부족에 직면했다”며, 군의 긴급 배급 작전 감독 아래 의료품을 실은 첫 트럭들이 수도 가보로네를 출발해 전국 각지로 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츠와나 재무부는 의료품 구매를 위한 긴급 자금으로 2억 5,000만 풀라(약 257억 원)를 승인했다. 앞서 이달 초 보츠와나 보건부는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약품과 물자가 부족해지고 있다고 경고 하며 모든 비응급 수술을 연기하도록 했다. 그러면서 고혈압, 암, 당뇨병, 결핵, 안과 질환, 천식, 정신 질환 치료용 의약품은 물론 붕대와 봉합용 실도 부족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보아라, 내가 이 도성을 치료하여 낮게 하겠고, 그 주민을 고쳐 주고, 그들이 평화와 참된 안전을 마음껏 누리게 하여 주겠다(예레미야 33:6, 새번역)

하나님, 재정적 어려움과 의료 공급망 붕괴로 인해 의약품과 의료용품이 부족해 공중보건 비상사태를 선포한 위태로운 보츠와나를 주께 의탁드립니다. 생명이 위독한 자들에게 견뎌낼 힘을 주시고 이 위기 앞에 위정자들과 백성들이 한마음으로 주님을 찾게 하옵소서. 또한 복음에 반응했던 이 민족이 가난한 마음으로 다시 복음 앞에 서서 십자가의 은총을 구하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도성과 주민을 치료하여 낮게 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 그의 영혼에 참된 평화와 안식을 마음껏 누리게 하옵소서.

▲ 유엔, ‘ISIS, 군사적 패배 뒤에도 전 세계 위협 지속’

이슬람 극단주의 무장세력 아이시스(ISIS, 이슬람국가)가 군사적 패배 이후에도 기술과 선전을 활용하며 적응하고, 여전히 전 세계적 위협으로 남아 있다고 유엔(UN) 전문가가 경고했다. 크리스천포스트에 따르면, UN 대테러국 사무차장 블라디미르 보론코프는 지난 20일 안보리 브리핑에서 아이시스가 아프리카, 시리아, 아프가니스탄 등에서 세력을 재편하며 복원력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아프리카가 현재 전 세계에서 ISIS 활동 강도가 가장 높은 지역”이라며 사헬·서아프리카·차드호 유역 등에서 활동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보론코프는 리비아에서 적발된 네트워크가 사헬 지역과 연결돼 있었고, 소말리아와 이라크·시리아 등지에서도 ISIS가 지역 네트워크와 치안 공백을 이용해 세력 재건을 시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아프가니스탄 내 ‘호라산 지부’(IS-K)가 인공지능, 암호화 메신저, 크라우드펀딩 등을 활용해 선전과 모금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시리아 북동부 수용소에 수만 명의 여성과 아동이 열악한 환경에 구금돼 있어 급진화 위험이 높으며, 안전하고 존엄한 송환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테러 지도부 제거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각국과 지역기구의 장기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너는 네 백성 중에 돌아다니며 사람을 비방하지 말며 네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지 말라 나는 여호와이니라(레위기 19:16)

하나님, 테러와 집단학살 등 끔찍한 만행으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아이시스가 여전히 이웃의 피를 흘려 이익을 도모하고 있음을 주께 고합니다. 주여, 이들을 꾸짖어 악한 세력을 무력화하시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와 짝하여 불의를 일삼는 모든 곳에 십자가를 선포하사 복음의 승전보가 울려 퍼지게 하옵소서. 지금 이때 영혼에 가장 필요한 주의 말씀이 열방의 예수교회를 통해 전파되게 하소서. 그래서 인생의 고난을 맞으며, 갈급한 자들에게 구원의 기쁜 소식이 들려져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닳을 내리게 하소서.

“임금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기도하라”

반정부 시위 격화...복음주의 교계, 기도 요청



세르비아 전역에서 반정부 시위가 점차 폭력적으로 변하자 복음주의 기독교계가 국가의 안정을 위한 기도를 요청했다. 2024년 11월 노비사드 기차역 지붕 붕괴로 최소 15명이 사망한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시위는, 정부의 부패와 무능에 대한 국민적 분노로 확산됐다. 초기에는 대학생 중심의 평화적인 집회였으나, 최근에는 경찰 충돌, 집권당 사무실 공격, 과잉 진압 논란 등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다.

복음주의 지도자들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정치적 위기가 아닌 영적 각성과 회복의 기회로 보고 있으며, 교회가 사회적 책임을 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이고 있다. 세르비아복음주의연맹 회장 사무일 페트로브스키는 “지도자들이 지혜로운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기도해 달라”고 요청하며 “우리는 국가가 내전으로 치닫는 것을 우려한다”고 밝혔다.

노비사드의 두산 베레디 목사는 시위가 본래의 성격을 넘어섰다고 지적했다. 그는 “시위는 더 이상 학생이 주도하지 않고, 종종 폭력성을 띠고 있다”며 “시위를 지지하지만 목회자로서 직접 참여하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지금 교회들은 문제 해결을 위해 훨씬 더 많이 기도하고 있으며, 그것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베오그라드대학교 타티야나 사마르지야 교수는 “진실하고 정직한 교회만이 유일하게 사회적 혼란을 바로잡을 수 있다. 교회 구성원이 비겁하고 위선적이라면 아무런 차이도 만들 수 없다”며 “모든 선지자들이 항상 그랬던 것처럼, 기독교인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진리와 정의를 지켜야 한다. 그러나 세상의 수단인 폭력, 부패, 조작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U의 마르타 코스 집행위원장은 시위 중 폭력 사태에 대해 “매우 우려스럽다”고 전했다. EU는 가입 과정에서 평화적 집회와 표현의 자유 보장을 핵심 조건으로 강조하며 인권 침해에 강경 대응할 입장이다. 반면 러시아 외무부는 시위를 ‘폭동’으로 규정하고 세르비아 정부 지지를 표명하며 추가 지원 가능성도 내비쳤다.

엠네스티 인터내셔널과 시민권수호자들은 세르비아 경찰의 과잉 진압과 불법적인 체포를 강하게 비판하며, 독립적인 조사를 촉구했다. 특히 학생 시위대에 대한 폭력과 병원 이송 사례가 다수 보고되면서, 국제 사회의 감시가 더욱 강화되고 있다(출처: 크리스천투데이 종합).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디모데전서 2:1-2)

하나님, 철도역 지붕 붕괴 사고를 계기로 시작된 대규모 반부패 운동이 점차 폭력적으로 변화되는 상황을 돌아보사 시위자들의 혼돈된 마음을 잠잠케하여 주십시오. 복음만이 사회적 혼란을 바로잡고 나라를 바르게 세울 수 있음을 믿사오니 교회가 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받아 무엇보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가게 하옵소서. 교회의 기도와 간구를 통하여 타락한 정권의 쇄신 수준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진정한 회복과 부흥이 세르비아 안에 일어날 수 있게 하시고, 속히 주의 평화가 임하게 하소서.

▲ 인도, 지참금 요구 거절당한 아내 폭행·방화 살해...7살 아들이 목격

인도에서 결혼 지참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남편이 아내를 폭행하고 이어, 시어머니가 며느리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여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다고 27일 뉴시스가 인도 매체 NDTV를 인용해 보도했다. 인도 우타르프라데시 주에 거주하던 니키 바티(28·여)는 지난 21일 남편과 다투던 중 폭행을 당했고, 이어 시어머니가 니키의 몸에 기름을 붓고 불을 붙였다. 니키는 전신 70% 이상에 화상을 입고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끝내 숨졌다. 당시 이 상황을 모두 목격한 니키의 일곱 살 아들이 외할아버지에게 해당 사건을 알리며 외부에 알려졌다. 니키의 언니 칸찬은 “니키가 지참금을 구하지 못했고, 이를 받아내기 위해 시댁 식구들은 그녀를 폭행했고 산 채로 불태웠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 결과, 남편은 결혼 당시 신부 측에 지참금 360만 루피(약 5,700만 원)를 요구했고, 결혼 이후에도 추가로 고급 차량과 현금을 요구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남편은 지참금을 가져오지 않았다는 지속적인 폭행과 니키가 운영하던 미용실 수익까지 빼앗았다. 특히 남편은 경찰 조사에서 “아내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고 진술해 현지 여론의 분노를 샀다. 인도에서는 1961년 지참금 제도가 법으로 금지됐으나 일부 지역은 여전히 악습으로 남아있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실제로 인도 국가범죄기록국(NCRB) 자료에 따르면 매년 수천 명의 여성이 다우리 데스(dowry deaths, 지참금 살해)로 기록되고 있다.

그러므로 너희는 내 명령을 지키고 너희가 들어가기 전에 행하던 가증한 풍속을 하나라도 따름으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레위기 18:30)

하나님, 지참금 제도가 법으로 금지됐으나 힌두 사회에서 여전한 악습으로 남아있어 해마다 수천 명의 여성이 가족에 의해 살해당하는 비참한 인도의 상황을 주께 의탁 드립니다. 가증한 풍속을 내세워 폭력과 살인을 정당화하며 스스로 더럽히는 악한 탐심과 정욕을 꾸짖어 주시고 주님의 개입하심을 통해 이들이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박해 가운데서도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충성된 인도교회를 통해 이 땅에 진리가 회복되며, 주님의 공의와 질서가 세워지는 나라 되게 하소서.

▲ 모리타니, 5년간 아프리카 이주민·망명 신청자 학대

북아프리카 모리타니 군경이 지난 5년간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과 망명 신청자들을 학대했다는 보고서가 발표됐다고 27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인권단체 휴먼라이츠워치(HRW)가 27일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초까지 모리타니 경찰, 해안경비대, 해군, 헌병, 육군 등이 고문, 강간, 폭력, 성희롱, 자의적 체포와 구금, 절도, 집단 추방 등 다양하고 심각한 인권 침해해 국경과 이민 통제 과정에서 저질렀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모리타니를 경유해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와 유럽으로 가려던 서아프리카나 중앙아프리카 출신이었다. 휴먼라이츠워치의 로렌 사이버트 연구원은 “모리타니 당국은 학대적 이민 통제 방식을 고수해왔다”며 “이는 북아프리카 전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사례”라고 지적했다. 이번 보고서는 아프리카 출신 이주민, 망명 신청자 100여 명을 포함한 총 223명의 인터뷰를 토대로 작성됐다. 카나리아 제도는 아프리카 서북부 대서양에 있는 스페인령 군도로 아프리카 대륙과는 가까워 유럽으로 가는 아프리카 이주민의 주요 관문 중 하나다. 스페인 당국에 따르면 작년 한 해 카나리아 제도로 유입된 아프리카 이주민은 역대 최다인 4만 6,843명이었으나 올해 1-7월은 약 1만 1,500명으로 줄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여 이르시기를 너희는 진실한 재판을 행하며 서로 인애와 긍휼을 베풀며 과부와 고아와 나그네와 궁핍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서로 해하려고 마음에 도모하지 말라 하였으나(스가랴 7:9-10)

하나님, 유럽으로 가는 경로가 가장 짧은 지정학적 이유로 모리타니에 몰려드는 망명자들을 향한 심각한 인권 침해해 주께 고합니다. 주여, 자국의 이익을 위해 강경한 태도를 보이는 정부와 이를 악용하는 군경을 꾸짖어 주시고, 나그네와 궁핍한 자에게 인애와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선한 양심과 지혜를 더하여 주소서. 오랜 시간 복음에 굳게 달린 모리타니에 많은 이들의 기도와 섬김으로 주께서 소망의 싹을 피우고 계심을 믿습니다. 친히 십자가로 그 사랑을 보이신 은혜의 복음이 각 영혼의 복된 소식이 되게 하셔서 천국을 소망하는 하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